

## 제 2회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년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에 있는 광명 국민학교에서 청년 대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내 독신 성인 50여 명이 참석한 청년 대회는 노변의 밤, 선교 사업 세미나, 성경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선교 세미나는 청년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심을 불러넣게 한 좋은 순서였으며 귀한 선교사 자매님의 간증은 매우 인상 깊었다.

청년 대회 첫날에는 5와드 민 신홍 감독이 주민들을 위한 치과 특별 진료를 해주는 대민 봉사 프로그램도 가졌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모범적인 대원에 대한 시상상을 마지막 날에 가졌는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투상=형 해룡(1와드)

모범 대원상=어 영석(면목와드)

김 시영(춘천지부)

서 지원(도봉와드)

성 명숙(춘천지부) \*



## 마산 와드 예배당 신축 기공식



마산 와드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마산시 장군동 5~3번지에서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부산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와 부산 선교 부장단 그리고 마산과 진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였다. 마산 와드는 부산 스테이크가 탄생되면서 지부에서 와드로 승격되었으며, 김 만금 형제가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1969년에 마산에 선교사가 도착한 이래 11년만에 새로운 건물의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

## 서울 동 스테이크 소년 대회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광명 국민학교에서 소년 대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내 청년·청녀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와드·지부에서 닦았던 재능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대대별 장기 자랑, 음악 경연제, 체육 대회, 그룹별 토론, 경전 경시 및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가졌으며, 특히 모든 청소년들이 나의 발전 기록부와 개인·달성 프로그램을 지참하여 대회 기간 동안 개인 시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신권 역원과의 개인 접견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의논을 하기도 하였다. \*

##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 별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윌리엄 에이치 베넷 장로는 지난 7월 23일, 유타주 바운티플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7월 28일, 바운티플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 센터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이 추도사를 통해 그를 추모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감리한 장례식에서는 십이사도 평의회 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스티얼링 더블류 실 장로가 추도사를 했다.

장례식에는 대관장단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이외에도 십이사도 평의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관리 감독단에 속한 총관리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은 운구를 하였다.

캐나다의 앨버타주, 태버시 출신인 베넷 장로는 1910년 11월 5일에 윌리엄 엘빈과

메리 워커 베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패트리시아 준 크리스틴슨과 1950년 4월 12일에 로간 신전에서 결혼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5남 5녀 외에 7명의 손자가 있다.

베넷 장로는 1972년에 플로리다 사우드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으며, 2년 후에도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가 되었다. 그에 앞서 1963~1967년에는 신권 선교사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고, 1967년에는 신권 복지 위원회의 위원으로 부름받았다. 그 부름을 받은 지 일년이 채 못되어, 그는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로 부름받았고, 1970년 4월 6일에는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로 부름받았다.

유타주 로간에서 오래 거주하는 동안, 베넷 장로는 와드와 스테이크 신권 및 보조 직책을 맡아 일했으며, 8년 이상을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일했다. \*